

흉선종의 외과적 치료

경희의료원 흉부외과

김명천 · 이문환 · 홍치욱 · 유세영 · 박주철 · 조규석

경희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6년 1월 부터 1995년 8월까지 10년 동안 22예의 흉선종에 대한 수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22예의 흉선종 수술환자중 남자 15예 여자 7예로 남자가 2.1배로 많았고 평균 47세 였다.
2. 중증 근무력증은 12예에서 동반(55%)되었고 40~50대에서 가장 많았다.
3. 조직학적으로 임파구성 12예 혼합형 7예 상피세포형 3예를 보였다.
4. 비침윤형은 10예 모두 외과적 절제만 하였고 침윤형은 12예중 9예에서 완전절제가 가능하였으며(이중 외과적 절제만 7예, 방사선치료 부가한 5예,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부가한 1예였으며) 2예는 부분절제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이중 1예는 추가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1예는 조직 생검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5. 25일에서 60개월의 추적조사기간중 3예의 사망이 있었고 경과의호전을 보인 1예와 재발 2예 및 16예의 완쾌상태를 보였다.
6. 흉선종 환자중 근무력증을 합병한 12예에서 1예의 사망이 근무력위기로 야기 됐으며 2예의 증상악화와 5예의 증상호전 및 나머지 4예는 술전과 비슷한 정도의 항콜린에스테라제 약물 치료를 계속 필요로 하였다.